



THE BRIDGE COMPANY

Philharmonie Korea

필하모니코리아 창단연주회

SHOSTAKOVICH SYMPHONY NO.4



필하모니코리아 창단연주회

객원지휘 지중배 | 피아노 샤를 리샤르-아믈랭

M. Ravel | D. Shostakovich

2022. 11. 25^{FRI} 8:00^{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안녕하세요.

더브릿지컴퍼니 대표 윤동진입니다.

새로운 민간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며 저 혼자만의 기획노트에 끄적인지 5년 만에 필하모니코리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필하모니코리아는 척박한 국내 민간 오케스트라 영역에서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자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간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국·공립 오케스트라가 가지는 제약들로부터 자유롭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습니다. 필하모니코리아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해외에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닦아 훌륭한 연주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주자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필하모니코리아는 단순히 연주자들에게 무대 기회를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여 훌륭한 연주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민간오케스트라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을 관객을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하모니코리아의 시작은 상임지휘자 없이 객원지휘자들로 운영됩니다. 상임지휘자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늘 새로운 지휘자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관객, 지휘자, 협연자의 균형을 맞추어 최고의 공연을 올리겠다는 포부이기도 합니다.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프로그램, 지휘자·협연자와 더불어 관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지휘자, 협연자의 균형을 맞추어 기획합니다. 필하모니코리아는 이러한 균형을 바탕으로 정기공연, 기획, 초청 연주 등을 기획하고자 하며,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오케스트라 최고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케스트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창단연주회는 국내 최고의 악장과 수석이 함께합니다. 수석연주자들은 대부분 국내 오케스트라에서 악장 혹은 수석을 맡고 있으며, 일반 단원들 또한 실력과 연주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필하모니코리아는 우수한 연주력을 담보하고 더불어 젊은 연주자의 성장에도 최선을 다하는 안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지휘자와 협연자를 초청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관객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실력 있는 지휘자와 연주자로부터 좋은 경험과 조연을, 젊은 지휘자와 협연자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성장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듯 클래식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성장에도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하모니코리아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원 조성에 대해 개인기부와 기업기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분들의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 모여, 예술가는 마음껏 예술을 전하고, 관객은 다채롭고 넓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미약하지만 올해 초부터 정기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부까지 유치하려 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필하모니코리아는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 발전과 더 많은 분들이 클래식 공연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창단음악회,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모리스 라벨

Maurice Ravel

피아노 협주곡 사장조

Piano Concerto in G major

🕒 25'

- 1악장 즐겁게
Allegramente
- 2악장 매우 느리게
Adagio assai
- 3악장 매우 빠르게
Presto

인터미션
Intermission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Dmitri Shostakovich

교향곡 제4번 다단조, 작품번호 43

Symphony No.4 in C minor, Op.43

🕒 65'

- 1악장 조금 빠르게 조금씩 보통 빠르게 - 매우 빠르게
Allegretto poco moderato - Presto
- 2악장 보통빠르기로 생생하게
Moderato con moto
- 3악장 느리게 - 빠르게
Largo - Allegro



필하모니코리아는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있는 음악가들이 모여 창단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최고 연주자들이 모인 필하모니코리아는 품격 높은 연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또한 자유롭고 다채로운 기획력으로 실내악부터 대편성 작품까지 그리고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폭 넓은 레퍼토리를 선사하며 지휘자와 단원은 각자의 예술성으로 정통 클래식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정기연주회 및 기획공연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과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주며 관객과 예술로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정통 클래식의 진정한 매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객원지휘 **지중배** Joongbae Jee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휘자 지중배는 2015/16시즌부터 2017/18시즌 동안 거장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수석지휘자로 있었던 독일 울름 시립극장 (Theater Ulm) 및 울름 시립교향악단과, 지난 2012/13시즌부터 2014/15시즌 동안 독일 트리어 시립극장 (Theater Trier) 및 시립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 및 부 음악총감독 (독문 stellvertreter des Generalmusikdirektor und 1.Kapellmeister / 영문 principal conductor and deputy general music director) 으로 활동하였다.

독일 음악협회 “미래의 거장” (Maestro von Morgen) 10인에 선정되었고, 정부 산하 독일 음악협회 (Deutsche Musikrat)의 지휘자 포럼(Dirigentenforum)의 멤버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유카-페카 사라스테, 마르크 알브레히트, 운 메르클, 에리클라스, 시안 에드워즈 등에게 수학하였다. 특히 핀란드 출신의 거장 유카-페카 사라스테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2014년부터 그의 개인적인 보조지휘자로서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

2009년 브람스 지휘콩쿨 결선에 나갔고, 2012년 독일 음악협회와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에서 공동 주최한 독일 오페레타상 지휘자상을 동양인으로 최초로 수상 하였다. 부상으로 라이프치히 오페라의 프로덕션 슈트라우스의 “박쥐”를 지휘하게 되었다. 같은 해 오페 오더-슈프레(Oper Oder-Spree) 오페라 페스티벌 음악감독 및 지휘자를 역임하였다

현대음악 분야에 있어서도 2009 오스트리아 클랑스푸렌 (Klangspuren), 이탈리아 트랜스아트(Transart) 현대음악제에 참가하고, 유럽 정상급 현대음악단체 앙상블 모데른(Ensemble Modern)과 국제 앙상블 모데른 아카데미 오케스트라(International Ensemble Modern Academy)를 지휘하였으며, 국내 대표 현대음악 단체인 TIMF Ensemble의 유럽순회 공연을 지휘하였다.

2015년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서 외교부가 주최하고, 독일정부의 후원으로 열린 광복70주년 유라시아 친선특급 폐막음악회에서 소프라노 조수미 등과 함께 한국-독일 연합오케스트라를 한국 측 대표 지휘자로 지휘 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WDR 심포니오케스트라 쾰른, MDR 심포니 오케스트라, 뉘른베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괴팅겐 심포니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앙상블 레조난츠, 서남독일 필하모니 콘스탄츠, 바덴-바덴 필하모니, 쿠퍼팔츠 챔버오케스트라(만하임 챔버오케스트라), 남독일 챔버 오케스트라 포르츠하임, 라이프치히 오페라 하우스, 에스토니아 타르투 바네무 이네 극장 오케스트라, 앙상블 모데른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등 유럽의 여러 오케스트라와 연주하고 있으며, 독일의 울름 시립극장, 트리어 시립극장, 오페라 라이프치히, 하겐 시립극장, 포어모메른 주립극장등의 다수의 오페라 프로덕션과 발레 프로덕션, 심포니 연주회등을 지휘하였다.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지중배는,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와 KBS교향악단 교향악축제를 비롯하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구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대전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경 arte필하모닉등 국내 우수 교향악단과 함께 하였다. 또한 예술의전당과의 오랜 협업으로 최근 2022 토요콘서트 하반기 시리즈 (7월-10월)와 예술의전당 기획오페라 푸치니<투란도트>와 모차르트<마술피리>를 지휘하였으며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그리고 유니버설발레단의 정기공연들을 지휘하였다.

바로크, 원전연주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 활동 외에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음대에서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를,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후학을 가르쳤으며, 독일 여러 교향악단들과 함께하는 지휘 마스터클래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자로서의 활동 또한 이어 나갔다.

최근 지휘자 지중배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박영희의 오페라 ‘길 위의 천국’의 세계 초연을 지휘, 또한 공연의 예술총감독으로 전체 프로덕션을 이끌었으며 2022년 10월에는 독일 에센 필하모니주최의 현대음악제 “NOW! Festival 2022” 개막공연에서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Bochum Symphoniker)를 연주 하였다.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서울대학교 및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피아니스트 샤를 리샤르-아믈랭 Charles Richard-Hamelin

21세기 낭만주의자라고 불리는 피아니스트 샤를 리샤르-아믈랭은 “매우 섬세한 피아니스트”(그라모폰), “그는 유려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나며 매력적인 음색과 우아하고 세련된 테크닉을 가졌다.” (BBC 음악 매거진) 등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뛰어난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그는 바르샤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및 최고의 소나타를 연주한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상을 수상하였으며,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2위와 서울 국제 음악콩쿠르 3위와 베토벤 소나타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샤를 리샤르-아믈랭은 프랑스 라 로크 당테롱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체코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페스티벌,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과 그의 유럽, 루마니아 제오르제 에네스쿠 페스티벌 등 세계 저명 클래식 축제에 초청되어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루네 버그만, 켄트 나가노, 바실리 페트렌코, 야체크 카스프치크, 아지즈 쇼하키모프, 피터 운진, 자크 라콩브, 파비아양 가벨, 카를로 리치, 알렉산더 프라이어, 크리스토퍼 캠페스트리니, 란 슈이, 장-마리 자이투니, 찰스 올리비에리-먼로, 하워드 셸리, 안토니 비트 그리고 조나단 코언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었으며, 솔리스트로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퀘벡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드몬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이무지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심포니오케스트라, 히로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레 비올롱 뒤 루와 체임버 오케스트라, 켈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라코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포즈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등 세계의 저명한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협연을 진행하였다.

샤를 리샤르-아믈랭은 지금까지 9개의 음반을 녹음하였으며, 모두 아날렉타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다. 2015년, 쇼팽의 후기 작품을 녹음한 첫 번째 음반은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 발매된 그의 두 번째 음반은 퀘벡시 몽칼름 궁전에서의 공연 실황으로, 베토벤, 에네스쿠, 쇼팽의 작품을 녹음하였다. 이후 그의 디스코그래피는 세 장의 음반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솔로 바이올리니스트인 앤드류 완과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중 초기 작품을 녹음하였으며, 몬트리올 메종 심포닉에서 켄트 나가노의 지휘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의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 실황을 음반으로 발매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매된 그의 음반에는 조나단 코언의 지휘로 레 비올롱 뒤 루와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 담겨 있다. 이 앨범들은 음악 비평가들로부터 극찬과 수상의 영예를 받았다. 2021년, 바이올리니스트 앤드류 완과 함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녹음한 두 번째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쇼팽 24개의 프렐류드,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를 연주한 리사이틀 음반을 발매하였다.

그의 앨범은 펠리스 상, 디아파중 상, BBC 음악 매거진 상, 르도보와르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캐나다 <2020 클래식 앨범 TOP 20> 1위, 캐나다 공영방송이 선정한 <2019 캐나다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앨범>, 2019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권위 있는 예술상인 <캐나다 퀘벡 음반공연 협회상>을 수상하며 캐나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중의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Program Note

르네상스와 바로크, 선법음악의 시대를 거쳐나오며 선택받은 두 시스템, 장조와 단조를 기본 재료로 삼은 새로운 서양음악의 한 챕터는 곧 조성음악의 시대였다. 조성음악의 시초 이래 화음은 계속 확대되었고, 화음의 연결에 대한 탐구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 낭만성의 표현이라는 기치 아래 화성 평창은 점점 가속화되었다.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는 화성의 연결로 이루어진 음악적 문장의 종결을 유보하거나 방향성을 흐트리고 분산시켰다. 음악적 소양이 밝지 못한 일반의 귀는 더 이상 화성 연결도 이해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20세기 즈음 들어서자 조성음악은 막다른 골목을 만난다. 더이상 확대될 곳이 없고, 어떤 연결도 새롭게 들리지 못했다.

한편 1908년 12월,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의 현악사중주 2번이 초연된다. 현악사중주 옆에 함께 무대에 오른 소프라노는 슈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 1868~1933)의 시를 천천히 읊어 노래한다. “Ich fühle Luft von anderem Planeten(나는 다른 행성의 공기를 느낀다).” 어떠한 신호탄이었다.

쇤베르크의 상기 작품이 조성 음악의 최후를 대변한다라거나 하는 식의 설명은 조금 선부를 수 있겠으나, 해체된 조성 위에서 저런 노래를 하는 소프라노는, 그런 장면을 품은 “현악사중주”는 확실히 평범을 벗어난 무언가이다. 두번의 세계대전과 사이의 간전기, 그리고 그 앞뒤로 놓인 세계사적인 흐름과 분위기는 동시대의 음악과 음악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어느때보다도 타 예술분야와 긴밀하게 교통하고 협업되었다. 폭력적으로 탐구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였다. 가속페달은 끝까지 눌러있었고, 세계 전체가 미친듯이 소용돌이 쳤다. 세계대전과 미국의 성장, 군국주의와 파시즘, 대공황, 나치, 소비에트, 또 한번의 대전, 원자폭탄. 인간은 반복적으로 회의되었고 계속하여 패배하였다.

Piano Concerto in G major | Maurice Ravel, 1875-1937

1919년, 동맹국의 항복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다. 당시 라벨은 44세였으며, 1년 뒤인 1920년에 <La Valse 라 발스>를 완성한다. 이 춤곡에 서린 광기와 찢어지는 사운드의 근원은 분명 그 초토이리라.

한편 라벨의 이 피아노 협주곡(1931)은 그의 생전 완성된 마지막에서 두번째 작품이다. <라 발스>와 이 협주곡 사이에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Tzigane 치간>,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oléro 볼레로> 등이 위치해 있다. 협주곡 이후에 남긴 그의 마지막 작품은 1934년에 출판된 가곡 3부작 <Don Quichotte à Dulcinée 돌시네의 돈 키호테>이며, 당시 대규모 오페라 작곡 또한 계획하고 있었지만 뇌질환 등의 건강악화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벨은 관현악법에 능통했던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도 일컬어지곤 하는데, 사실 관현악법 뿐만 아니라 음악적 구조나 내용면에서도 항상 독창적이며 번뜩이는 작품들을 내어왔다. 그의 생애와 연보에서 나타나는 작품들을 보고있다면 한 개인의 작품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다채롭다. 오늘날에야 ‘라벨적인’ 사운드, ‘라벨적인’ 음악이라고 지칭되는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의 음악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나 여러 요소와 사건들, 그로부터 받은 심상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어법으로 풀어 놓은 작가는 없었다.

덱시랜드(Original Dixieland Jazz Band)의 재즈나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1901~1971)의 대두가 1920년대라는 사실을 염두하면 이 협주곡의 양 끝 악장에서 나타나는 재즈적 요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테다. 가볍고 몽환적인 음색으로 한껏 치장된 협주곡 도입에서는 어딘가 그로테스크한 구석이 느껴진다. 당대의 다른 작곡가들과 비교하여서는 화성적으로 매우 전통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차 융합되기 위한 여유가 충분하다. 재즈를 연상시키는 제스처들이 밝은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위를 유희하듯 스쳐지나는 모양새가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다. 밝은 노래는 어두운 곳에 선 자들에게 더 필요한 법이다.

다만, 빠른 두 악장 사이의 천천히 노래하는 2악장(II. Adagio assai)은 청자와 거리감을 확 좁혀 속삭이는 무엇보다도 진실한

노래이다. 긴 피아노 독주에서부터 피어나는 오케스트라의 노래는 누구에게보다도 라벨 스스로에게 필요했던 음악일지 모른다.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게끔 노래하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는 10분이 채 못되게 이어진다. 길다고 느껴지면 지루하거나 나태하며, 짧다고 느껴지면 아쉬울 법인데, 한 번 주옥 지나가고 나면 참 좋아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프레이즈의 끝에 연주되는 트릴들은 하릴없이 그 자리에 서서 담담히 최후를 맞이한다.

잠시 뒤면 신호음과 함께 피아노가 짧은 3악장을 질주할 것이다. 라벨은 이제 5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세계는 또 하나의 세계 대전을 앞두고 있었다.

Symphony No. 4 in C minor, Op. 43 | Dmitry Shostakovich, 1906~1975

681,692. 1937년에서 1938년까지의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루어진 대숙청에서 집행된 사형의 숫자이다. 사형이 아니더라도 고문이나 노역 중의 질병 등으로 사망한 숫자 또한 셀 수 없이 많으며, 95만명에서 120만명 정도가 이 기간동안 숙청을 통해 사망했을 것이라 추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위 간부 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련의 전 분야에 걸쳐 스탈린 체제에 비판적이라고 간주되면 모조리 숙청 당하였다.

쇼스타코비치는 1934년 오페라 <Lady Macbeth of the Mtsensk District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Op.29>을 통해 음악계의 영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27세였던 쇼스타코비치는 단숨에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성공가도를 달릴 준비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1936년 1월 28일 당 기관지의 한 사설에 그의 오페라가 거론되며 분위기는 급전되었다. 사설 제목은 ‘음악이 아니라 혼돈’이었으며, <맥베스 부인>에는 ‘형식주의자’의 경향이 자명하다라는 식의 내용이였다. 쇼스타코비치가 말 그대로 생존에 위협을 느꼈을 것 또한 자명한 상황이었다. <맥베스 부인>은 하루가 멀다하고 토론회의 주제로 오르내렸으며, 그 작곡가가 문책의 중심에 서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작곡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고작이었다. 막심 고리키(Maxim Gorky, 1868~1936)는 젊은 작곡가에게 잘못이 없다며 스탈린에게 직언하기도 하였다.

조금 앞선 결론은, 1937년 초연된 그의 교향곡 5번이 ‘정당한 비판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창조적 응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사회생의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그보다 앞서 작곡된 교향곡 4번(1936년 완성)은 여러가지로 참 기구하다. 이 교향곡은 1935년 9월에 작곡되기 시작해 이듬해인 1936년 5월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초연은 1961년에야 키릴 콘드라신(Kiril Kondrashin, 1914~1981)의 지휘로 모스크바 필하모닉과 함께 겨우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래는 1936년 12월 레닌그라드에서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의 연주로 초연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아침 한 신문을 통해 작곡가 스스로가 곡의 초연을 취소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로 당시의 상황을 어슴푸레 짐작할 뿐이다.

그가 교향곡 5번을 통해 스스로 작법적인, 혹은 태도에 있어서의 일련의 변화를 꾀하였는지, 아니면 “교향곡 5번이 정당한 비판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응답이라고들 하니 매우 기쁘다”라는 쇼스타코비치의 진술은 사실 자조섞인 비꼼 뿐인지는 여러 해석으로 갈린다. 분명한 것은 그가 직전 교향곡 4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또한 일련의 곤란함을 겪었고, 그 교향곡은 마침 정치적 상황상 편치 못했던 그의 처지를 나아지게 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향곡 4번은 대숙청 이전의 작품이며, 어쩌면 그가 체제의 의견과 관련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을지를 보여주는 작품일지 모른다.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한 시간 분량의 악곡이며, 급진적이라기에는 전통에 의거한 모양들과 서사로 이루어져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도전적이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의 열개를 따르나, 전개부에서의 빠른 푸가와 함께 쇄도하는 현악기의 소리가 자아내는 충격이 전체 서사보다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특수 관악기를 추가한 확대된 4관편성, 8대의 호른을 포함한 금관과 타악기군, 첼레스타와 하프, 그리고 대규모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포함한다.

글 | 백승현(지휘자)

콘서트 드라마트루기 백승현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합창 지휘 석사 졸업
- 7. Ernst-von-Schuch-Preis 공동수상
- Forum Dirigieren포럼디리지엔(전 Dirigentenforum디리겐텐포럼) 멤버 역임
- Yuri Simonov, Lutz Köhler, Rüdiger Bohn, Sebastian Lang-lessing, Roger Epple, Pavel Baleff, Golo Berg, Lutz Rademacher 등의 마스터클래스 참가
- 바덴바덴 필하모니, 지엘로나구라 필하모니, 로이틀링엔 필하모니, 앙상블 무직파브리, 데트몰트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바트라이헨할 필하모니, 웨스트보헤미안 심포니, 포항시립교향악단, 서울모던앙상블, 서울비 르투오지, 앙상블 위로 등 객원지휘
- 예원학교, 서울예고, 덕원예고, 덕성여대 음악아카데미 강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 재학

◆수석 + 부수석

악장 웨인 린(서울시향 부악장)

제1바이올린 태선이 ◆ (대전시향 제2악장)
 강유경, 이지원, 박동석, 이서진, 윤지원, 김서진, 임주연, 우희원, 김지민, 홍석기, 김은지, 박은서, 이경아, 조수민

제2바이올린 김효경 ◆ (前서울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 現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정단원)
 강유리+ , 이근화, 오현, 장새봄, 고찬미, 손주희, 곽연후, 배정윤, 박지현, 전의엽, 황영지, 오서영, 배채은

비올라 이윤미 ◆ (부천필 제2수석)
 정윤영, 견지아, 김유나, 김다은, 김민영, 김량하, 박하은, 김대건, 김성윤, 신소희, 박하문

첼로 채훈선 ◆ (록스트리오 · 발트앙상블 첼리스트)
 조연우, 최영, 신아연, 이지훈, 이윤주, 강예주, 남아연, 정영진, 조현철, 이정윤

더블베이스 조용우 ◆ (경기프리모예술단 음악감독)
 박성진, 서지은, 김효선, 정세라, 장형원, 이대욱, 강지승

하프 방선영, 양혜영

플루트	유지홍 ◆ (뷔에르 앙상블) 안일구, 송혜리, 김하은, 김은기, 한성은
오보에	송영현 ◆ (춘천시향 수석) 박인영, 정서윤, 이수민
클라리넷	이새롬 ◆ (인천시향 수석) 윤보라, 최수지, 성유민, 김진수, 김영효
바순	김현준 ◆ (강남심포니 수석) 이하은, 서리라, 조기화
호른	유선경 ◆ (대전시향 수석) 이성무, 이하영, 김철, 허건행, 이재권, 김예은, 양지명
트럼펫	최인혁 ◆ (오푸스 앙상블), 배재혁 ◆ (부천필 제1수석) 박상범+, 김상민, 이영훈
트롬본	제이슨 크리미 ◆ (서울시향 부수석) 신경원
베이스트롬본	윤영훈
튜바	박제연, 서현권
팀파니	한충호 ◆ (대전시향 팀파니 수석(비상임)) 마민창
타악기	김영은, 신무경, 박찬식, 박정우, 정주환
첼레스타	방지민

HYEJI BAK PERCUSSION RECITAL



HYEJI BAK

박 혜 지 타 악 기 리 사 이 틀

2022. 11. 26^{SAT} 8:00^{PM} |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02)580-1300

티켓 전석 3만원 문의 THE BRIDGE COMPANY 02)6094-1001

Chloe Jiyeong Mun

스크리아빈에서 슈만,
다시 스크리아빈

2022. 11. 27. SUN 5PM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후원 (재)설원량문화재단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예매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인터파크 티켓 문의 02-6094-1001

예술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더브릿지컴퍼니 연주자 후원 안내

더브릿지컴퍼니와 동행하는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예술에 집중하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길이 남을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브릿지컴퍼니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후원인이 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정기후원

후원금액	월 1만원 이상
출금	매월 25일 약정 금액 / CMS 자동이체

- ▶ 후원해주신 금액은 법정기부금 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쳐 더브릿지컴퍼니로 전달되며, 모든 금액은 투명하게 운용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정산 및 보고됩니다.
- ▶ 일시후원 혹은 단체 차원(법인 등)의 후원은 후원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후원 기부금 사용

- 더브릿지컴퍼니 아티스트 후원
- 음반제작비
- 연습실대관료
- 국내외항공비
- 홍보비용
- 해외체류비
- 각종 제반비용 등

정기후원 신청방법

전화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예우

공동혜택



특별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 등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아티스트 지정후원 가능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무료 증정



후원자 감사 문자 발송



더브릿지컴퍼니 뉴스레터 발송



후원금액별 예우 제공

*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3개월 후 회원자격(1년)이 부여되며, 후원 중단 시 회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1만원 이상	공동 혜택
3만원 이상	감사선물전달 더브릿지컴퍼니 기획공연 선예매 서비스 제공
5만원 이상	후원금액 3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1매) 기획공연 할인률 20%(R,S석/최대 2매)
10만원 이상	후원금액 5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 제공(R석/2매) 기획공연 할인률 30%(R,S석/최대 2매)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내 후원자 명단 기재
30만원 이상	후원금액 10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4매) 후원자 이름을 담은 연주자 감사메시지 전달 더브릿지컴퍼니 웹사이트 내 후원자 명단 기재
50만원 이상	후원금액 30만원 이상 혜택 포함 기획공연 좌석제공(R석/4매) 기획공연 리허설 초대 (연 1회, 인원한정) 후원인들을 위한 연주회 및 리셉션 초청 (연 1회, 동반 1인 한정)

STAFF

대표	윤동진
기획	윤진성, 민다빈, 조정하, 이정현
디자인	장보화
홍보	인더케이브 견민정



www.thebridgekr.com



[The Bridge Company](#)



[thebridge_classics](#)